

# 《老乞大》 상업어휘 연구\*

강 용 중\*\*

---

## ◁ 목 차 ▷

---

- I. 서론
  - II. 연구범위와 방법
  - III. 《老乞大》 상업어휘의 구성
  - IV. 《老乞大》의 판본 간 비교를 통한 상업어휘 풀이
  - V. 결어
- 

## I. 서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대중(對中) 관계는 지형학적 요소나 문화적 요소로 볼 때 밀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적 소통이다. 당시의 양국의 조정 및 민간부문의 교류 상황은 국제관계사 등에서 다루고 있지만, 국경지역에서 전개된 언어접촉이나 쌍방의 언어 습득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는 많지 않다. 다행히 고려 말과 조선시대의 회화류 교재가 전승되고 있어 당시의 언어학습 과정과 언어실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서적이 바로 《老乞大》와 《朴通事》이다. 현존하는 이 두 책의 전본(傳本) 중 여말(麗末)에 간행된 원간본 《老乞大》가 가장 이른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다.<sup>1)</sup> 이후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는 《老乞大》와 《朴通事》가 각각 우리말로 번역(언해)되거나 중국어 음을 전사(轉寫)하기도 했으며, 새로운 언어성분을 반영한 이본(異本)들이 출현하기

---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3S1A5B8A01053894).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1) 여말(麗末)에 간행된 원간본 《老乞大》는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남권희교수가 발견하였다.

도 했고, 《老·朴集覽》과 같은 사전 기능을 겸한 주석서도 출현했다. 이러한 중국어 회화류 역학서의 출현과 보급은 당시의 중국어 교육에도 절대적인 과급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국어 교육사 연구에 결정적인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조선시대는 중국어교육사에서 대단히 발전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사역원(司譯院)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외국어 교육은 중국어(漢學), 만주어(淸學), 몽골어(蒙學), 일본어(倭學)를 아우르는 사학(四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老乞大》와 《朴通事》는 그중 한학(漢學) 즉 중국어교육의 필수 교재였다. 《老乞大》는 우리나라 상인이 중국 경내를 다니면서 상거래를 하는 기본적인 통속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 《朴通事》는 일상생활이나 문물·제도를 다루고 있어 《老乞大》보다는 수준이 높은 중국어를 반영하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려는 내용은 《老乞大》의 상업어휘이다. 《老乞大》의 내용이 상거래를 주로 다루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언어적인 측면이나 회화서로서의 성격에 집중하여 연구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교육에서도 실용중국어 또는 무역중국어가 교과목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老乞大》를 단순한 회화서가 아니라 무역중국어 또는 상업중국어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때만이 이 텍스트에 대한 좀 더 실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어휘학적으로 보자면 《老乞大》에 나타난 방대한 양의 어휘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는 한에 있어서 전문용어를 우선 연구하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제한된 전문용어의 연구를 통해 《老乞大》의 제 판본에 반영된 어휘의 변화나 사용양상을 연구한다면 학문적으로도 보다 직접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업어휘는 적어도 《老乞大》에 있어서 대단히 핵심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문용어 연구를 《老乞大》에 적용한다면 1차적으로 상업어휘를 연구할 수밖에 없다.

한편 중국의 원나라와 명청시기는 상업적으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老乞大》는 마침 이 시기에 해당하는 구어로 된 회화서이자 상업어휘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중국의 사회경제사의 연구에도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정사(正史)는 주로 서면어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업과 관련한 구어적인 표현은 많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본고의 연구는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우선 2장에서는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해 서술할 것이다. 여기서는 상업어휘를 직

접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필자의 연구와 상관 선행연구에 기초해 《老乞大》 상업어휘의 구성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老乞大》의 네 가지 판본에 보이는 상업어휘의 판본 간 전승관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일부 난해한 어휘의 풀이도 진행할 것이다.

## II. 연구범위와 방법

본 장에서는 《老乞大》가 속하는 근대중국어 어휘연구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본고의 연구범위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근대중국어 연구는 20세기 후반 이래 풍부한 연구 성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현재 접할 수 있는 있는 관련 저서와 학술논문에 나타나며, 연구 인력도 많이 증가했다. 중국의 경우 학부나 대학원 과정에 근대중국어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도 계몽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것은 바로 근대중국어 어휘 연구이다. 중국의 蔣紹愚(2005 : 273)교수는 일찍이 “근대중국어의 어음·어법·어휘의 세 분야 연구 중 어휘 연구는 가장 먼저 시작되어, 앞선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남겨놓은 연구 성과는 상당히 풍부하다. 그러나 어음·어법과 비교하면, 근대중국어 어휘 연구에 대한 계통성은 가장 부족하다.”고 하였다.

관건은 ‘계통적 연구’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대중국어 어휘의 ‘계통적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제한된 시간과 연구 범위 중에서, 만약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적 기준을 준비하거나 확립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발전이 있을 것이다. 어휘 그 자체를 계통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어휘를 고증하고 해석을 하든 전문저서를 연구하든 간에 신뢰할 만한 계통적 기초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하나의 어휘를 고증 해석할 때 연관성에 주의해야 후속 연구나 다른 학자들의 연구 중에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예로, 전문저서를 연구할 때 분석틀에 주의해야 다른 시기의 연구 성과와 연결될 수 있다. 만약 하나의 기준 또는 통일된 방향과 단계가 없다면 연구 자체는 분산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이상의 제안에 부합하는 연구, 즉 ‘특정텍스트의 전문용어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老乞大》는 수백 년에 걸쳐 다양한 판본을 보유하고 있다. 또 어휘 분야에는 몇몇 성과가 있다. 《老乞大》 자체는 구어화의 정도나 언어적 속성의 동일성의 각도에서 보면 비교적 이상적인 언어자료이다. 전문용어로서의 상업어휘는 《老乞大》에 비교적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老乞大》 다양한 판본은 시기적으로 적어도 400년 이상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상업어휘를 연구 자체로 한정하여 보자면 先秦 兩漢 시기는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다. 필자는 최근 17세기 이래 9종의 조선시대 유해류(類解類) 분류사전에 보이는 상업어휘의 분석과 정리를 작업을 마쳤다. 만약 다시 《老乞大》의 상업어휘를 연구할 경우, 위진시기부터 송대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상업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어휘 연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텍스트는 《老乞大》이다. 《老乞大》의 언어 연구를 둘러싸고 일어난 비교적 큰 변화는 바로 고려본(元刊本)의 발견이다. 우리들은 이것을 분수령으로, 고려본 발견 이후를 '새로운 연구'로 부를 수 있다. 새로운 연구의 표지는 이태수(2000, 2003)의 《老乞大》 4종 판본 언어 연구이다. 그는 대표성을 지닌 네 가지 상이한 판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어법 비교 연구를 하였다. 이태수의 논문이 발표된 후, 같은 방식의 《老乞大》어휘 비교 연구 박사 논문 두 편이 나왔다.

王霞, 《〈老乞大〉四種版本詞彙研究》, 韓國外國語大學 博士論文, 2002.

夏鳳梅, 《〈老乞大〉四種版本詞彙比較研究》, 浙江大學 博士論文, 2005.

이 두 편의 논문이 다루는 범위는 바로 4종 판본에 나타난 어휘이다. 이들은 현재 유행하는 연구 방법을 운용하는 한편, 일부 창의적인 성과도 내었다. 이는 의심할 바 없는 새로운 발전이다. 이상 3편의 박사 논문의 비교 방식은 아래와 같다.

249A- 咱每飯也喫了也, 與了飯錢去來。賣物, 來廻鈔。通該多少?

249B- 咱們飯也喫了, 與了飯錢去。過賣, 來會錢。通該多少?

249C- 咱們飯也吃了, 給他飯錢罷。店家, 來會錢。共該多少?

249D- 咱們飯也喫了, 給他飯錢罷。店家, 來會錢。共該多少?

(우리 식사도 다 했으니 밥값 내러 갑시다. 주인장 계산하려 하는데 다 얼마인가요?)

위의 A·B·C·D는 《老乞大》의 상이한 판본으로, 각기 《古本老乞大》(1346년 이전 판본, 약칭은 ‘A’와 ‘古老’); 《老乞大諺解》(1670년 이전 판본, 약칭은 ‘B’와 ‘老’); 《老乞大新釋》(1761년, 약칭은 ‘C’와 ‘老新’); 《重刊老乞大諺解》(1795년-1798년, 약칭은 ‘D’와 ‘重老’) 등이다(李泰洙, 2003). 앞의 숫자는 이태수교수가 나눈 대화 단락으로 모두 616구절이 있다. 이 중에서 일부 어휘와 어법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보이는 249절의 상업어휘를 들어보면 “飯錢, 賣物, 過賣, 店家, 廻鈔, 會錢, 多少” 등이 있다.

4장에서는 앞의 예와 같이 《老乞大》의 네 가지 판본을 대비하여 상업어휘를 추출할 것이다. 그리고 제시 방법은 유의어(類義語)를 묶어서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앞의 ‘賣物—過賣—店家’, ‘廻鈔—會錢’과 같이 동의어나 비슷한 단어를 그룹으로 만들어 대조할 것이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老乞大》가 반영하는 상업어휘의 수량은 중국사회경제사 연구자들이 중시하는 ‘상업서<sup>3)</sup>’와 비교할 때 훨씬 많다. 이 점은 이미 사회 경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주의하고 있다(毛佩琦 2009; 張雪慧 2003; 陳高華 1995). 따라서 《老乞大》를 가지고 상업어휘를 연구하는 데는 일정한 의의가 있다. 또한 공시적·통시적 비교 연구는 《老乞大》에 나타난 상업어휘의 진면목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사전은 《漢語大詞典》이며, ‘CCL(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고증한다. 본고에서 사용한 《老乞大》의 4종 판본은 이태수(2003)의 《《老乞大》四種版本言語研究》의 부록에 실린 ‘《老乞大》四種版本句節對照’를 따랐다.

2) 본고에서 예문의 번역은 맨 먼저 출현하는 고려본만 한다. 다만 이후의 판본에 차이가 클 경우 따로 언급하기로 한다.

3) 명청시기의 상업과 관련이 있는 상업서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楊正泰 校注《天下水陸路程·天下路程圖引·客商一覽醒迷》, 山西人民出版社, 1992.

楊正泰 校注《明代驛站考·一統路程圖記·士商類要》, 上海古籍出版社, 1994.

李華 編《明清以來北京工商會館碑刻選編》, 文物出版社, 1980.

蘇州歷史博物館 外編《明清蘇州工商業碑刻輯》, 江蘇人民出版社, 1980.

### Ⅲ. 《老乞大》 상업어휘의 구성

전문용어의 연구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분류의 문제이다. 상업어휘를 예로 들면 반드시 상업어휘의 범위를 확정하고 내부적인 관련성을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상업어휘의 범위와 분류 방식을 논의하고자 한다.

王洪涌이 《先秦兩漢商業詞彙、語義系統研究》(2006)에서 사용한 분류 틀은 다음과 같다.

- (1) 商賈類
- (2) 商業活動類
- (3) 貨幣類
- (4) 市場類
- (5) 商業管理類

앞의 다섯 가지 분류는 王洪涌이 선진 양한의 상업어휘에 국한하여 분류한 것이므로 이 시기의 상업어휘는 이와 같은 틀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다시 《老乞大》의 상업어휘를 분석하면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현대 중국어 분류사전인 《同義詞詞林》(1983)을 사용할 수 있다. 《同義詞詞林》의 비교적 큰 특징은 개념에 따라 현대 중국어 전체 어휘를 어휘 계통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 분류사전의 상업어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다.

- H 活動
- He 經濟活動
- He1.貿易 輸出 輸入 投資
- He2.招攬 標價 講價 成交
- He3.買 賣
- He4.出租 租用
- He5.營利 分紅 翻本
- He6.兌換 兌現
- He7.放債 借債
- He8.欠債 討債 還債
- He9.典當 抵押 賠償 贖回

- He10.征收 交納 支付  
 He11.撥款 劃撥  
 He12.記帳 盤點  
 He13.積累 花費 浪費 節省  
 He14.足夠 相抵 剩餘 結存 虧欠  
 He15.缺少 遺漏  
 He16.合計

여기에서 첫 번째 영문 H는 대분류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로 '사람의 활동'이다. e는 이런 활동의 하위분류 중의 하나인 '경제활동'이다. 그 다음의 숫자는 이 하위분류의 하위분류를 표시한다. 각각의 모든 하위분류 아래에는 현대 중국어의 상관어휘를 나열하였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하면 한편으로는 계통성을 보장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중국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한편 필자는 4종 판본의 비교 분석과 다른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은 상업어휘를 얻었다.

假、加、家計、家私、加五利錢、假偽、家財、價錢、腳價、揀、減、減少、據、檢、檢、檢點、繳計、見、見鈔、見成、見銀、缺、結裏、契、計較、計量、高、共、恐、公道、工墨、共通、過瞞、過賣、管、管牙人、官銀、關店、官店、官秤、官稱、交、交易、交足、勾、勾當、舊例、關、饋、貴、貴賤、叫喚、剋落、金、吃虧、納稅上稅、茶房、短少、挑、賭、得、等、爛鈔、濫賤、量酒、零碎、零截、老實、料鈔、利家、理論、利錢、立契人、賣、買、賣買、賣物、買主、賣主、覓、問客、文契、文券、紋銀、駁彈、伴當、盤弄、盤纏、飯錢、反悔、反悔錢、發、發落、發賣、房產、房錢、排布、伯兒、白銀、罰、番悔、番悔錢、本分、本錢、富、付能、分開、分明、分散、分兒、捨、私稱、私秤、賒、筭、筭計、筭一筭、筭除、筭該、上等、商量、上稅、上好、索、生活、成、成交、成就、成合、稅、細絲、細絲官銀、細絲紋銀、細絲兒、收買、熟客人、熟主顧、承管、承當、時價、實直、牙家、牙稅、牙稅錢、牙人、牙子、牙錢、牙行、量、零碎、外行、要約、元絲、銀、銀子、銀錢、議定、印信、字兒、雜貨鋪、雜貨鋪兒、掌櫃、財帛、襪、剪、錢、典當、典當、俵當、纏帶、轉賣、錢物、錢本、錢財、折本、點看、點數、點視、店、店家、店房、店子、定、濟、除、除了、耀、酒館、酒錢、酒店、中人、中統鈔、借、次一等、著中、直錢、天平地平、賤、賤合殺、添、貼、青絲、鈔、出脫、稱意、打配、打筭、打總、打總、打

火、搭包、兌、兌付、兌銀、擇鈔、討、退換、擺佈、擺布、評、鋪、布價、鋪家、包彈、褒彈、豹子生活、豹子行貨、限、合口、行市、行貨、虛價、玄絲、好鈔、貨物、火伴、花使、畫押、火帳、火錢、喚、換、還錢、還足、還鈔、謊、謊價、黃金、悔交、會錢、迴鈔、回鈔、廻貨、回貨、橫財、虧、虧本、欠(258개)

우선 언어단위로 볼 때 다음절어(예: 假、加、揀、減) 다음절어(예: 家計、家私、家財、價錢) 및 구의 형식(예: 加五利錢、次一等)이 있다. 여기에 든 어휘들은 네 판본에 보이는 상업어휘를 망라한 것이므로 상당수의 동의어(예: 管牙人、牙家、牙人、牙子、牙行) 또는 유의어(예: 爛鈔、擇鈔、料鈔、銀子、官銀)가 존재한다. 서사(書寫)상의 차이가 있는 것(예: 典當、典當、典當)이나 접미어 유무에 따른 차이(예: 雜貨鋪、雜貨鋪兒)가 보이는 것들도 있다. 이상 나열한 어휘는 반드시 상업어휘 전체를 포괄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누락이 있거나 분류의 틀이 달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사실은 이상의 어휘에는 상거래의 대상인 상품이 배제되어 있다. 상품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당연히 상업어휘에 포함되어야 하나,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사물의 명칭(物名)이기도 하므로 일반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관례이다. 만약 상거래의 대상인 상품을 모두 상업어휘에 포함시키면 몇 만개가 다 이 범주에 들 수 있게 된다. 《老乞大》의 경우 후반부에 상당수의 상품이 등장한다. 이들 상품명은 당시 역관이나 상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어휘였다. 상품의 이름을 모르거나 우리말에 대응시키지 못하면 상거래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는 상품관련 어휘가 보이는 구절이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고려본만 인용하기로 한다.

341A—這曳刺馬、驢馬、赤馬、黃馬、驚色馬、栗色馬、黑綜馬、白馬、黑馬、灰馬、土黃馬、繡膊馬、白臉馬、五明馬、桃花馬、青驄馬、豁鼻馬、騾馬、懷駒馬、環眼馬、乖驕馬、煙薰馬。

404A—這茶褐暗花鴉青胸背、象牙底兒胸背、六花暗花遍編金苔子、雲肩、暗花和織、和素、紅綾、生絹、紅裏絹、綿紬、絲紬、銷金段子、披氈、氈衫、油單、罌罌、裁帛腰線、鴉青、鴨綠、柳青、大紅、小紅、肉紅、桃紅、茜紅、銀褐、鵝黃、金色茶褐、麝香茶褐、酒浸茶褐紫紵絲、紅腰線襖子



341에 보이는 어휘는 말의 종류이다. 《老乞大》에 말을 거래하는 장면이 나오므로 상품명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404의 어휘는 옷에 관련된 어휘들이다. 이렇듯 《老乞大》에 보이는 상품명은 사물의 명칭 또는 다른 분류어휘로 귀납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상업어휘로 다루지 않는다.

또 다른 예는 직업과 관련된 호칭의 처리 문제이다. 牛振(2008:143)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老乞大》와 《朴通事》에 보이는 직업이나 신분 관련 어휘는 다음과 같다.

師傅、學生、管牙人、牙人、牙家、鋪家、染家、樂工、塗工、匠人、鐵匠、帶匠、木匠、狐帽匠、泥水匠、茶博士、畫匠、陰陽人、獸醫、庄家、座子、問客、賣物、量酒、過賣、漁翁、太醫、媒人、站家、廚子、賊、賊人、強盜、官司、弓手、弓兵、牢子、皂隸、宮娥、官司人、作作、書生、和尚、道人、行者

필자의 분류로는 이들 어휘 중 師傅、學生、賊、賊人、強盜、官司、弓手、弓兵、牢子、皂隸、宮娥、官司人、作作、書生、和尚、道人、行者、漁翁、太醫 등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업어휘에 속하지 않는다. 이들은 상업행위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 않으므로 상업어휘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앞에서 든 258개의 상업어휘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다수의 다의어(多義語) 처리상의 문제로 《同義詞詞林》의 분류체제에 귀납시키지 못했다. 이 작업은 연구가 더 진행되면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본고의 4장에서 다루는 어휘에는 가급적 《同義詞詞林》의 분류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 IV. 《老乞大》의 판본 간 비교를 통한 상업어휘 풀이

이 장에서는 《老乞大》의 상업어휘를 네 판본을 활용하여 대조 분석한다. 2장에서 이미 소개한 대로 《老乞大》의 네 판본은 다음과 같다.

A: 《古本老乞大》(1346년 이전 판본)

- B: 《老乞大諺解》(1670년 이전 판본)  
 C: 《老乞大新釋》(1761년)  
 D: 《重刊老乞大諺解》(1795년-1798년)

이상에서 보듯 《老乞大》는 1346년 이후 450여년에 걸쳐 기본적인 내용을 변화시키지 않고 중국어의 변화와 발전을 반영해 부단히 교재를 편찬해 왔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판종 간의 대조연구는 독특한 이문(異文)관계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언어학적인 사실들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老乞大》 상업어휘의 판본 간 전승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첫째, 《老乞大》에 어떤 상업어휘들이 있나? 둘째, 각각의 판본 간에 어휘의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두 개 이상의 동의어나 유의어가 의미관계를 가질 경우 구체적인 양상은 어떠한가? 넷째, 각각의 판본은 어휘단위별로 완전히 일대일로 대응하는가? 아니면 수사적 필요나 어휘학적 수요에 따라 변용하고 있는가? 등등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우선 비교적 간단한 경우를 보기로 하자.

### 【利錢】

‘利錢’은 네 판본에 다 출현하며 총 6문장에서 보인다.

	A	B	C	D
50(2회), 52, 415, 555, 587	利錢	利錢	利錢	利錢

- 50A— 到恁那地面裏，也有些利錢麼？ 那的也中。俺年時根著漢兒伴當到高唐，收買些綿絹將到王京賣了，也覓了些利錢。(古老4a9)  
 50B— 到你那地面裏，也有些利錢麼？ 那的也中。我年時跟著漢兒火伴到高唐，收買些綿絹將到王京賣了，也尋了些利錢。(老11b8 / 22)  
 50C— 若到你那地方，也有些利錢麼？ 那箇也好。我當年跟著中國人到高唐，收買些綿絹廻到王京賣了，也得些利錢。(老新4b8)  
 50D— 若到你那地方，也有些利錢麼？ 那箇也好。我當年跟著中國人到高唐，收買些綾絹回到王京賣了，也得些利錢。(重老11b7 / 24)  
 (당신 그쪽 지방에 가면 역시 이윤이 좀 있습니까? 그것도 좋지요. 저는 그해에

중국인 친구를 따라 高唐에가 綿과 絹을 좀 수매해 王京에 내다 팔았는데 역시 이윤을 보았지요.)

《漢語大詞典》에서는 《水滸傳》第三八回：“宋江道：‘只用十兩銀子去取，再要利錢麼？’李逵道：‘利錢已有在這裏了，只要十兩本錢去討。’”을 가장 이른 예로 인용하고 있다. 《老乞大》에 보이는 총24개의 예는 변화 없이 네 판본에 널리 쓰인 사실로 보아 당시의 구어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네 판본에 변화 없이 같은 의미로 사용된 상업어휘로는 ‘退換’, ‘兌付’, ‘剋落’, ‘交足’, ‘鋪家’ 등이 있다. 이 네 어휘의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81A— 却不當面檢點見數，出門不管退換也。

(면전에서 값을 확인하지 않으면, 문을 나선 후에는 물려주지 않습니다.)

384A— 俺趕著馬，下處兌付草料去。

(저는 말을 몰고 숙소에 草料를 지불하러 갈 것입니다.)

529A— 那厮每將著鈔破使了，中間剋落了一半兒，養活媳婦孩兒。

(그놈들이 돈을 가져가 마음대로 쓰고, 중간에서 절반을 가로채 자신의 마누라와 아이를 먹여살립니다.)

372A— 其錢立契日一並交足，外無懸欠。

(돈은 계약 당일에 한꺼번에 지급했으므로 그 외에는 잔액이 없다.)

537A— 店主人家引著幾箇鋪家來，商量人蔘價錢。(古老35a6)

(점포 주인이 몇몇 상인을 데리고 와 인삼의 가격을 상의하였다.)

예문에서 보듯 ‘退換’은 ‘물려주다’, ‘兌付’는 ‘지불하다’, ‘剋落’는 ‘떼어먹다; 가로채다’, ‘交足’는 ‘다 지불하다’ 등의 뜻이다. 그중 ‘交足’는 단어가 아니라 구로 보아야 한다. ‘鋪家’는 《漢語大詞典》에 ‘점포’라는 의미만 수록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家’가 사람을 지칭하는 접미어로 쓰였다. 게다가 네 판본에 다 보이므로 장시간 사용된 점을 알 수 있다. 《漢語大詞典》에는 이 의미항을 누락하였다.

다음으로 위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변화는 없지만, 서사(書寫)법의 차이나 어미(語尾)의 유무가 다른 경우를 보기로 하자.

【雜貨鋪】 【雜貨鋪兒】

이 두 어휘는 각각 네 차례 출현하였다.

	A	B	C	D
192,193	雜貨鋪兒	雜貨鋪兒	雜貨鋪	雜貨鋪

192A— 離閣有一百步地向街，那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192B— 離閣有一百步地，北巷裏向街開雜貨鋪兒便是。

192C— 離閣有一百多步，北巷大街開的雜貨鋪便是。

192D— 離閣有一百多步，北巷大街開的雜貨鋪便是。

(누각으로부터 백 보 거리에 있는 그 북향거리의 잡화점을 연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193A— 那雜貨鋪兒是恁的那?(古老14a4)

193B— 那雜貨鋪兒是你的那?(老44a2 / 87)

193C— 那雜貨鋪是你的麼?(老新16a4)

193D— 那雜貨鋪是你的麼?(重老44b6 / 90)

(그 잡화점은 당신의 것입니까?)

흥미 있는 사실은 ‘兒化’ 또는 접미어 ‘兒’가 쓰인 예가 오히려 이전에 출현했다는 것이다. 다만 의미로나 어근으로 보나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말하기는 어렵다.

어근은 같으나 서사법의 차이가 있는 예로는,

【典當】 【典當】 【儻儻】

등이 있다.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의미이지만 편방의 증감에 차이가 있다.

	A	B	C	D
531	典當	典當	儻儻	儻儻

531A— 田產房舍也典當了，身上穿的也沒，口裏吃的也沒。

531B— 田產房舍也典當了，身上穿的也沒，口裏吃的也沒。

531C— 田產房子也都儻儻了，身上穿的也沒有，口裏吃的也沒有。

531D— 田產房子也都儻儻了，身上穿的也沒有，口裏吃的也沒有。

(전답과 집도 전당잡히고 몸에 걸치는 옷도 없고, 입에 먹을 것도 없다.)

이 예들은 언어의 변화라기보다는 서사법의 변화 또는 세심한 편집원칙 등을 살펴 볼 수 있는 경우이다.

이어서 빈도는 낮으나 어휘의 변화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繳計】 【脚價】 【脚錢】

이 세 단어는 52구절에만 보인다.

	A	B	C	D
52	繳計	繳計	脚價	脚錢

- 52A—通滾箸著，除了牙稅繳計外，也覓了加五利錢。
  - 52B—通滾箸著，除了牙稅繳計外，也尋了加五利錢。
  - 52C—通共箸來，除了牙稅脚價之外，也可得加五的利錢。
  - 52D—通共計來，除了牙稅脚錢之外，也可得加五的利錢。
- (합해서 계산하면 牙稅와 운반비를 제하고도 5리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첫 단어 ‘繳計’는 《漢語大詞典》에 보이지 않는다. ‘脚價’, ‘脚錢’은 ‘운반비’등의 비용을 나타낸다. 따라서 ‘繳計’도 역시 ‘운반비 등의 비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만한 사실은 ‘繳計’는 점차 소실했고 ‘脚價’나 ‘脚錢’이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過瞞】 【欺騙】 【欺瞞】

이 세 단어 중 ‘過瞞’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欺騙’과 ‘欺瞞’ 중 현대 구어에서는 ‘欺騙’을 더 자주 쓴다. 《老乞大》에 보이는 용례를 보기로 하자.

	A	B	C	D
582	過瞞	欺瞞	欺騙	欺瞞

- 582A— 恁這等慣做買賣的人，俺一等不慣的人根底多有過瞞有。
- 582B— 你這們慣做買賣的人，我一等不慣的人根前多有欺瞞。
- 582C— 你們是慣做買賣的人，我們却不慣欺騙人。
- 582D— 你們是慣做買賣的人，似我們不慣的根前多有欺瞞。

(당신들 같이 장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우리같이 익숙하지 못한 사람을 주로 속이지요.)

예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주목할 만한 사실은 C에서 오히려 ‘欺騙’을 쓰고 B와 D에서는 동일하게 ‘欺瞞’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상 세 단어의 용례가 여기에만 보여 다른 예를 대비할 수 없고 그 원인조차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다른 코퍼스나 자료를 활용해 보충할 필요가 있다.

【纏帶】 【搭包】

이 두 어휘는 변화 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경우에 속한다.

	A	B	C	D
103,104	纏帶	纏帶	搭包	搭包

103A— 有一箇客人, 纏帶裏裝著一卷紙, 腰裏絛著, 在路傍樹底下歇涼睡。

103B— 有一箇客人, 纏帶裏裝著一卷紙, 腰裏拴著, 在路傍樹底下歇涼睡。

103C— 有一箇客人, 搭包裏藏著一打子紙, 腰裏絛著, 在路傍樹底下歇涼睡。

103D— 有一箇客人, 搭包裏藏著一打子紙, 腰裏拴著, 在路傍樹底下歇涼睡。

(한 객상이 전대에 한 두루마리의 종이를 넣어 허리춤에 차고서는 길가의 나무 아래에서 낮잠을 잤다.)

A, B판본에서는 ‘纏帶’라하고 C, D에서는 ‘搭包’라 했다. 《漢語大詞典》의 ‘纏帶’조에서는 《水滸傳》와 《金瓶梅詞話》만 인용하고 현대의 용례는 없는 반면, ‘搭包’조에서는 《初刻拍案驚奇》뿐만 아니라 老舍의 《駱駝祥子》도 인용해 현대까지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살펴 볼 유형은 단순한 유어의 관계의 어휘들이다.

【物業】 【家計】 【房產】 / 【房兒】 【房舍】 【房子】

앞위의 세 단어들은 서로 유의어를 이룬다. 용례는 다음과 같다.

	A	B	C	D
505	物業	家計	房產	房產
531	房舍	房舍	房子	房子
279	房兒	房兒	房子	房子

505A— 父母在生時, 家法名聽好來, 田產物業有來, 孳畜頭匹有來, 人口奴婢有來;

505B— 父母在生時, 家法名聲好來, 田產家計有來, 孳畜頭口有來, 人口奴婢有來;

505C— 他父母在生時, 家法名聲好來, 田地房產都有, 又有騎坐的牲口、使喚的奴婢;

505D— 他父母在生時, 家法名聲好來, 田地房產都有, 又有騎坐的牲口、使喚的奴婢;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집안의 법도와 명성이 좋았고 전답과 부동산도 있었으며, 가축과 탈 말도 있었고 노복과 노비도 있었건만:)

531A— 田產房舍也典當了, 身上穿的也沒, 口裏吃的也沒。

531B— 田產房舍也典當了, 身上穿的也沒, 口裏吃的也沒。

531C— 田產房子也都典當了, 身上穿的也沒有, 口裏吃的也沒有。

531D— 田產房子也都典當了, 身上穿的也沒有, 口裏吃的也沒有。

(전답과 집도 전당잡히고 몸에 걸치는 옷도 없고, 입에 먹을 것도 없다.)

279A— 這房兒也下的俺。

279B— 你這房兒也下的我。

279C— 你這房子也可以勾住了。

279D— 你這房子可以勾住了。

(이 집이면 당신이 충분히 묵을 수 있습니다.)

우선 505에 보이는 세 단어는 단순히 집만 말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을 통 털어 말한 것이다. C, D에 이르러서 '房產'으로 전승되었다. 다만 현대중국어에서는 아직도 부동산을 '物業'이라고도 한다. 531과 279에 보이는 어휘는 부동산보다 좁은 의미인 집을 나타낸다. 특이한 것은 앞의 '雜貨鋪兒'과 마찬가지로 '房'에 접미어 '兒'을 붙여 썼다는 것이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 유의어 관계를 더 살펴보기로 하자.

## 【問客】 【過賣】 【掌櫃的】 【賣物】 【店家】

이 단어들은 지배인 또는 점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A	B	C	D
245-1	問客	過賣	掌櫃的	掌櫃的
245-2	賣物	過賣	店家	店家
249	賣物	過賣	店家	店家

245A— 問客, 先將一梳溫水來, 俺洗面皮。客人每洗了面也。賣物, 抹卓兒。

245B— 過賣, 先將一梳溫水來, 我洗面。客人們洗面了。過賣, 抹卓兒。

245C— 掌櫃的, 先拿一盆溫水來, 我要洗臉。再拿漱口水來。客人們洗臉了。店家, 抹卓子。

245D— 掌櫃的, 先拿一盆溫水來, 我要洗臉。再拿漱口水來。客人們洗臉了。店家, 抹卓子。

(지배인 우선 제가 세수하게 따뜻한 물 한 바가지 가져다주세요. 손님들께서 세수하셨다. 점원 탁자를 닦게.)

249A— 咱每飯也喫了也, 與了飯錢去來。賣物, 來廻鈔。

249B— 咱們飯也喫了, 與了飯錢去。過賣, 來會錢。

249C— 咱們飯也喫了, 給他飯錢罷。店家, 來會錢。

249D— 咱們飯也喫了, 給他飯錢罷。店家, 來會錢。

(우리 식사도 다 했으니 밥값 내려 갑시다. 점원! 계산하려 하는데.)

우선 245-1의 A, C, D는 점포의 책임자급인 지배인을 나타낸다. 245-2와 249의 A, C, D는 종업원: 점원이다. 세 항의 B는 지배인과 종업원을 구분이 없는 듯 해 쉽게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다. 다만 《漢語大詞典》에는 宋·吳自牧의 《夢梁錄·面食店》: “客至坐定, 則一過賣執筆遍問坐客。”와 《水滸傳》第二九回: “武松道: ‘過賣, 叫你櫃上那婦人下來, 相伴我吃酒。’”라 하여 종업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어휘의미가 유의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미방향 또는 의미색채가 다르게 드러나는 경우 《老乞大》의 편집과정에서는 그것을 지킬 수도 안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 유형의 마지막 예들은 다음과 같다.



【田産】 【田地】

이 두 어휘의 경우 505의 C, D만 ‘田地’로 쓰고 나머지는 ‘田産’으로 되어있다.

	A	B	C	D
505	田産	田産	田地	田地
531	田産	田産	田産	田産

505A— 父母在生時，家法名聽好來，田産物業有來，孳畜頭匹有來，人口奴婢有來；

505B— 父母在生時，家法名聲好來，田産家計有來，孳畜頭口有來，人口奴婢有來；

505C— 他父母在生時，家法名聲好來，田地房産都有，又有騎坐的牲口、使喚的奴婢；

505D— 他父母在生時，家法名聲好來，田地房産都有，又有騎坐的牲口、使喚的奴婢；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집안의 법도와 명성이 좋았고 전답과 부동산도 있었으며, 가축과 탈 말도 있었고 노복과 노비도 있었건만；)

531A— 田産房舍也典當了，身上穿的也沒，口裏吃的也沒。

531B— 田産房舍也典當了，身上穿的也沒，口裏吃的也沒。

531C— 田産房子也都典當了，身上穿的也沒有，口裏吃的也沒有。

531D— 田産房子也都典當了，身上穿的也沒有，口裏吃的也沒有。

(전답과 집도 전당잡히고 몸에 걸치는 옷도 없고, 입에 먹을 것도 없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505의 田産物業가 田産房舍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질적인 505C, D의 田地는 새로운 성분의 출현이고, 531C, D의 田産은 의미의 축소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예로 다음을 들 수 있다.

【家私】 【名】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구절의 C, D가 나머지 여섯 개와 다른 경우이다.

	A	B	C	D
508	家私	家私	名	名
531	家私	家私	家私	家私

- 508A— 廻言道：使呵使了我的錢，壞呵壞了我的家私，干恁甚麼事？  
 508B— 廻言道：使時使了我的錢，壞時壞了我的家私，干你甚麼事？  
 508C— 他反倒回說：使是使了我的錢，壞是壞了我的名，干你甚麼事？  
 508D— 他倒廻說：使是使了我的錢，壞是壞了我的名，干你甚麼事？  
 (“씨도 내 돈을 쓰는 것이고 망가뜨려도 내 재산을 망가뜨리는 것이니 당신과 무슨 상관이요?”라고 그가 대꾸했다.)  
 531A— 後頭使的家私漸漸的消乏了，人口頭疋家財金銀器皿都盡賣了。  
 531B— 後來使的家私漸漸的消之(疑爲“乏”之誤)了，人口頭匹家財金銀器皿都盡賣了。  
 531C— 後來使的家私漸漸的消磨了，人口馬匹家財金銀器皿都盡賣了。  
 531D— 後來使的家私漸漸的消磨了，人口馬匹家財金銀器皿都盡賣了。  
 (나중에 쓸 수 있는 가산이 점점 줄어들고, 가솔·마소·家財·금은·그릇을 모두 팔았다.)

우선 ‘家私’는 ‘家財；家産’의 뜻을 가지며 《漢語大詞典》에서는 《京本通俗小說·志誠張主管》：“王招宣贖免張士廉罪犯，將家私給還，仍舊開胭脂絨線舖。”와 元·無名氏《鴛鴦被》第一折：“自從俺父親往京師，妾身獨自憂愁死，掌把著許大家私，無一個人扶持。” 등을 인용했다. 문제는 508C, D의 ‘名’이다. 만약 이 ‘名’을 ‘명예’로 풀이하면 A, B와 의미방향이 다르게 된다. 그러나 당시의 편집자들이 고의로 이러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名’에는 ‘명예’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의(名義)’라는 의미도 있으며 그 파생 형태인 ‘名田’이라는 단어도 있어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라는 뜻을 가진다. 《漢語大詞典》에서는 《史記·平準書》：“賈人有市籍者及其家屬，皆無得籍名田，以便農。”司馬貞索隱：“謂賈人有市籍，不許以名占田也。”를 예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쓰인 여섯 개의 ‘家私’와 의미적인 연관성이 확보된다. 이 경우는 앞의 ‘田産’과 ‘田地’의 관계와는 다른 동의사가 되며, 남은 문제는 명대 이후 ‘名’에 이러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조사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복잡한 유형에 대해 조사하기로 한다.

【發落】 【發賣】 【出脫】 【轉賣】 【分賣】 【發賣】

아래 여섯 구절에 보이는 어휘들은 동의사가 아니다. 서로 꼬리를 물고 의미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A	B	C	D
584	發落	發落	發落	發落
291	發落	發落	出脫	出脫
387	發落	發落	發賣	發賣
367	發落	轉賣	分賣	分賣
415	轉賣	轉賣	轉賣	轉賣
584	收拾	收拾	出脫	出脫
221	一就	一發	一發賣	一發賣
555	一發買	一發買	發賣	發賣

우선 네 판본이 동일한 584와 415를 검토하기로 한다.

584A—行貨都發落了也。

(물건도 모두 처분했군요.)

415A—俺老實對你說，俺自穿的不是，要將投鄉外轉賣，覓些利錢去。

(당신에게 솔직히 하는 말이지만, 내가 직접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갖고 다  
른 데로 가서 되팔아 이문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예에서 보듯 584의 ‘發落’는 ‘팔아 처리하다’의 의미이고, 415의 ‘轉賣’는 ‘되팔다’  
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291, 387, 367의 ‘發落’는 어떤 의미인가?

291A—咱每舍著草料，好生喂幾日發落，也不遲裏。

(우리가 여물을 투자해서 여러 날 동안 잘 먹이며 팔아도 늦지 않을 겁니다.)

387A—你這人蔘、布疋不曾發落，敢有些時住裏。(古老25b8)

(당신 이 인삼과 포를 아직 처분하지 않았으니, 좀 더 머물러 있겠군요.)

367A—這契寫時，一總寫那，一箇家分開著寫？ 休總寫。總寫時，怎麼發落？  
你各自寫者。

(한 번에 통틀어 쓰지 마세요. 한 번에 통틀어 쓰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  
할 수 있겠소? 당신은 각각 쓰시오.)

먼저 291과 387은 584와 마찬가지로 ‘팔다; 처분하다’의 뜻이므로 291C, D의 ‘出脫’나 387C, D의 ‘發賣’도 같은 의미를 지니는 동의어가 된다. 367은 轉賣의 뜻이므로 B는 ‘轉賣’로 되어 있어 문제가 없고, C, D의 ‘分賣’도 轉賣의 의미를 가진다.

한편 584C, D의 ‘出脫’는 291C, D와 같은 ‘出脫’이지만 584C, D와 짝이 되는 584A, B가 ‘收拾’로 되어있어 ‘(수금하여)마무리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584A— 那幾箇客人將布子去了。咱每人蔘價錢也都收拾了。

584C— 客人們拿了布去罷。咱們人蔘也都出脫了。

(저기 몇 분의 손님들이 포를 사서 갖고 갔군요. 우리는 인삼 값도 모두 거둬들였어요.)

이어서 221과 555에 대해 검토하기로 하자. 우선 555C, D의 ‘發賣’와 387C, D의 ‘發賣’를 비교하면 387의 경우 앞에서 본대로 ‘팔다; 처분하다’의 뜻이지만 555C, D의 ‘發賣’는 아래 예문에 보이는 대로 ‘轉賣하다’의 뜻이다.

555C— 我買去，不是自家穿的，要拿去發賣的，還要覓些利錢哩。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져가 轉賣하여 이문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221C, D는 555C, D의 ‘發賣’에 ‘一’이 부가된 형태이다. 의미적으로는 어떤 관련을 가질까?

221A— 一就那與些草料如何?

(하는 김에 말먹이를 조금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221C— 一發賣些草料與我喂他如何?

(하는 김에 말먹이를 저에게 팔아 그놈에게 먹이면 안 되겠습니까?)

위의 두 문장의 대비에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一就’와 ‘一發’이다. 이 단어들은 부사로 ‘하는 김에’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221은 전치사구(與我)를 썼으므로 ‘買’가

아니라 ‘賣’가 된다. 그러므로 ‘一發賣’는 단어가 아니라 구이다. 555 내부의 의미관계는 더 흥미롭다. 즉 A,B는 ‘一發買’로 C,D는 ‘發賣’로 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에 서는 A와 C를 직접 대비해 보기로 하자.

555A— 俺買呵, 買一兩箇, 自穿的不是, 一發買將去要覓些利錢。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사 가지고가서 이문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555C— 我買去, 不是自家穿的, 要拿去發賣的, 還要覓些利錢哩。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입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지고 가 轉賣해 이문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에 반대말 ‘賣’와 ‘買’가 같이 쓰였는가? 이 문제의 답은 서술의 착안점이 다르다는 데에 있다. 555A는 뒤에 복합방향보어 ‘~將去’를 써 ‘사(買)가지고’ ‘~한다’라는 표현을 취했고, 555C는 동보구조 ‘拿去’ 다음에 이어지는 ‘판(賣)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본다면 상반된 단어의 의미가 왜 같은 맥락에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다. 문장을 크게 보면 555A는 ‘~要~’이고, 555C는 ‘要~, 還要~’로 되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老乞大》의 새로운 판본의 편집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일대일로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언어의 실상에 근거해 더 생동적이고 어감에 맞는 표현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老乞大》에 대한 인식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살펴 볼 어휘는 ‘동료: 동업자’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다.

【伴當】 【火伴】 【同伴】 【大哥】 【阿哥】 【哥哥】 【相公】 【朋友】 【客人】

이 조의 어휘들은 수량도 많고 의미도 복잡하다.

	A	B	C	D
54,61(*2),70,71,79,87,88,146,163,	伴當	火伴	火伴	火伴

165,169,179,198, 202,230,268,272, 281,322(*2),325, 334,376,487,489, 494,535,586,611, 615				
4,5(*2)	伴當	火伴	朋友	朋友
29	伴當	火伴	同伴	同伴
35	伴當	火伴	∅[一同]	∅[一同]
50	[漢兒]伴當	[漢兒]火伴	∅[中國人]	∅[중국인]
469	伴當	伴當	伴當	伴當
526	僕奴	伴當	伴當	伴當
174,353,347	伴當	客人	客人	客人
368	伴當	∅	∅	∅
28,391	伴當	大哥	大哥	大哥
1	伴當	大哥	阿哥	大哥
258(*2),259,260	哥哥	大哥	阿哥	大哥
175	哥哥	大哥	大哥	大哥
587	哥哥	哥哥	大哥	大哥
404	∅	大哥	相公	相公
325,587	∅	∅	火伴	火伴

먼저 표에서 보는 대로 중심이 되는 어휘는 A의 '伴當'이다. 다른 어휘와 결합하는 경우가 10개나 되어 '伴當'의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이다. 우선 가장 많아 보이는 B,C,D에 火伴과 같이 출현하는 '伴當'은 '동료; 친구; 선생' 등의 호칭이나 관계를 나타낸다.

334A— 這三箇伴當, 兩箇是買馬的客人, 一箇是管牙人。

334B— 這三箇火伴, 兩箇是買馬的客人, 一箇是牙子。

334C— 這三箇火伴, 兩箇是買馬的客人, 一箇是牙子。

334D— 這三箇火伴, 兩箇是買馬的客人, 一箇是牙子。

(이 세 분 중 두 사람은 객상이고, 한 사람은 거간꾼입니다.)

322A— 你有幾箇伴當? 更有兩箇伴當, 都是親眷。

322B— 你有幾箇火伴? 又有兩箇火伴, 都是親眷。

322C— 你同幾箇火伴來? 有兩箇火伴, 都是親戚。

322D—你同幾箇火伴來? 有兩箇火伴, 都是親戚。  
(당신의 동료는 몇 명인가요? 두 명이 더 있습니다.)

334의 경우 처음 소개 할 때 우리말의 ‘선생’, ‘분’ 등에 해당하고, 322는 ‘같이 움직이는 동료’를 가리킨다. 이상의 예들은 큰 문제가 없다.

흥미 있는 사실은 특이하게 B,C,D에 ‘伴當’이 함께 출현하는 예가 있다는 것이다. 496과 526이 그것인데 이 경우 중요한 정보는 A에 유일하게 쓰인 ‘僕奴’에서 보인다.

526A— 吃了時, 吃些酪解粥, 騎著鞍馬, 引著僕奴, 著幾箇幫閑的般弄著, 先投大酒館裏坐下, 二三十兩酒肉吃了時, 酒帶半酣, 引動斜心, 座子人家裏去。

(먹고 나면 양젓으로 끓인 죽을 먹고 말에 올라타 하인을 거느리고 한량들이 수행하도록 하며, 먼저 큰 술집에 가서 앉아 한두 량어치의 술과 고기를 먹고서, 술이 반쯤 취해 淫心이 동하면 흥등가로 간다.)

469C—不但上頭客人只十數箇人吃, 那下頭還有十多箇伴當們, 怎麼不教他喫麼?

(비단 윗사람 열 몇 명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이 아래쪽 열 몇 하인들도 있는데 어찌 마시라 하지 않습니까?)

우선 526의 A는 분명 길을 이끄는 노비가 되고, 자연 526B,C,D의 ‘伴當’ 또한 이 의미로 쓰인 것이다. 고려본의 또 다른 곳인 469A의 ‘伴當’이나 나머지 B,C,D의 ‘伴當’은 위의 예문에서 보듯 아래쪽의 ‘하인’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고려본에 ‘伴當’은 ‘동료; 친구; 선생’ 등의 의미로 가장 많이 쓰였고, ‘僕奴’의 동의사로 ‘하인’이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리고 B,C,D의 ‘伴當’은 ‘하인’이라는 의미만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의미의 축소로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4와 5에 ‘朋友’가 보이는 것이 특이하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상용사가 된 이 단어는 여기의 C,D에만 쓰였다.

5C— 那朋友如今趕的上啊, 趕不上啊? 這箇朋友就是那箇, 昨兒箇才到來了。

5D— 那朋友如今趕上趕不上啊? 這箇朋友就是他, 昨兒箇才到來了。

(그 친구 분은 지금 왔나요? 못 왔나요? 이 친구가 바로 그입니다. 어제서야 겨우 도착했어요.)

29와 35는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인에게 길동무를 청하는 장면에서 나왔다. 구체적인 의미는 ‘동행’을 포함한다. 그래서 29의 C,D에는 ‘同伴’이 쓰였다.

나머지는 ‘大哥’, ‘阿哥’, ‘哥哥’ 등과 결합하는 경우이다. 28,391,1 등에서는 A에 여전히 ‘伴當’이 쓰였다.

28A— 伴當, 恁如今那裏去? 我也往大都去。(古老2b8)

28B— 大哥, 你如今那裏去? 我也往北京去。(老6b9 / 12)

28C— 大哥, 你如今往那裏去? 我也往北京去。(老新3a4)

28D— 大哥, 你如今那裏去? 我也往北京去。(重老7a4 / 15)

(형님 지금 어디로 가지죠? 저 역시 대도로 갑니다.)

이 경우는 ‘大哥’와 같은 친족호칭을 범칭(凡稱)으로 사용해 친근감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 의미는 ‘伴當’의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다.

한편 258, 259, 260, 175, 587 등의 A에 ‘哥哥’가 쓰인 점도 주의할만하다.

258A— 哥哥, 先喫一盞。哥哥受禮。你敢年紀大, 怎麼受禮?

(형님 먼저 한 잔 드시죠. 형님 잔 받으세요. 당신의 나이가 몇이 길래 잔을 올립니까?)

259A— 哥哥, 你貴壽? (古老18a8)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앞의 ‘伴當’보다 더 격의가 없는 친근한 표현으로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밖에 404, 325, 587 등에도 유의어가 보이며 앞에서 보인 방법으로 유추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개괄하면 《老乞大》의 네 판본을 비교해 당시의 상업어휘를 동의어 및 유의어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을 통해 당시 새로운 판본의 편집과 정에서 일대일의 대응이 아닌 복잡한 언어적인 변화를 아우르는 노력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 V. 결어

고려말과 조선시대에 걸쳐 간행된 회화류 역학서는 체재의 안정성이나 간행의 지속성으로 볼 때 중국어교육사에서 둘도 없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老乞大》가 반영하고 있는 언어나 풍속 물명 등과 회화서라는 점에 비중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본고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老乞大》의 상업서로서의 성격에 주목하고 그중에서 우선 상업어휘를 연구했다. 우선 대체적으로 상업어휘로 분류할 수 있는 258개의 상업어휘를 제시했다. 그리고 비록 이번 연구에서는 완성하지 못했지만 전문용어 연구에서 사용하는 어휘 분류의 틀을 제시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학계의 추세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老乞大》의 네 가지 판본을 이용하여 통시적 대비연구를 수행했다.

상업어휘는 본문에서 소개한 대로 《老乞大》의 텍스트적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언어단위이다. 특히 명청시대의 상업발전과 관련하여 《老乞大》의 서로 다른 판본에 보이는 어휘의 변천과정과 반영 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중국사회경제사나 중국어역사어휘학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직접 대조를 통해 분석한 상업어휘는 다음과 같다.

‘利錢’, ‘退換’, ‘兌付’, ‘剋落’, ‘交足’, ‘鋪家’, ‘雜貨鋪’, ‘雜貨鋪兒’, ‘典當’, ‘典當’, ‘典當’, ‘繳計’, ‘腳價’, ‘腳錢’, ‘過瞞’, ‘欺騙’, ‘欺瞞’, ‘纏帶’, ‘搭包’, ‘物業’, ‘家計’, ‘房產’, ‘房兒’, ‘房舍’, ‘房子’, ‘問客’, ‘過賣’, ‘掌櫃的’, ‘賣物’, ‘店家’, ‘田產’, ‘田地’, ‘家私’, ‘名’, ‘發落’, ‘發賣’, ‘出脫’, ‘轉賣’, ‘分賣’, ‘發賣’, ‘伴當’, ‘火伴’, ‘同伴’, ‘大哥’, ‘阿哥’, ‘哥哥’, ‘相公’, ‘朋友’, ‘客人’

이를 비교 단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利錢’, ‘退換’, ‘兌付’, ‘剋落’, ‘交足’, ‘鋪家’
2. ‘雜貨鋪’, ‘雜貨鋪兒’
3. ‘典當’, ‘典當’, ‘典當’
4. ‘繳計’, ‘腳價’, ‘腳錢’

5. '過瞞', '欺騙', '欺瞞'
6. '纏帶', '搭包'
7. '物業', '家計', '房產'
8. '房兒', '房舍', '房子'
9. '問客', '過賣', '掌櫃的', '賣物', '店家'
10. '田產', '田地'
11. '家私', '名'
12. '發落', '發賣', '出脫', '轉賣', '分賣', '發賣'
13. '伴當', '火伴', '同伴', '大哥', '阿哥', '哥哥', '相公', '朋友', '客人'

이중에는 출현빈도 별로 각기 특징이 있기도 하며, 다의사(多義詞)도 발견되었다. 그리고 판본 간의 전승과정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분을 섭취하고 안 쓰는 표현을 도태시키며 회화교재로써의 생명력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편 어휘는 일견 모래와 같지만 계통적인 연구 또한 충분히 가능하다. 이 방면에서는 개념사전이나 유의어를 활용하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의 기본적인 적용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258개의 상업어휘를 전문용어 분류 항목에 따라 귀납하지 못한 점은 차후에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외된 어려운 낱말이나 분류가 되지 않은 어휘들에 대해서는 다른 논문을 통해 후속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후에도 《老乞大》를 이용한 상업어휘 이외의 다른 전문용어 연구가 진작되기를 바라며, 이번 연구에서 미진했던 분류나 더 많은 어휘를 다루는 작업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박재연 《《老乞大》《朴通事》原文諺解比較資料》,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3.  
 안병희 《《老乞大》와 그 諺解書의 異本》, 서울대 《인문논총》 35, 1996/6.  
 정광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신구문화사, 2006.  
 \_\_\_\_ 《원본노걸대》, 김영사, 2004.  
 정광 양오진 《노박집람역주》, 태학사, 2011.

- 金文京 玄幸子 佐藤晴彦譯註, 鄭光解說《老乞大-朝鮮中世의中國語會話讀本》, 平凡社, 2002.
- 柳岳梅〈論《老乞大》의商務漢語教學特徵〉,《雲南師範大學學報(對外漢語教學與研究版)》, 2007/05.
- 李泰洙《《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2003.
- 梅家駒等編《同義詞詞林》, 上海辭書出版社 1983.
- 毛佩琦〈朝鮮《老乞大》의時代和它描述的社會生活〉,《大連大學學報》, 2009/01.
- 方一新《《老乞大》及《老乞大集覽》詞語雜記》,《合肥師範學院學報》, 2014/01.
- \_\_\_\_\_〈《元語言詞典》補苴一以《原本老乞大》爲例〉,《杭州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2/03.
- 王霞《《老乞大》四種版本詞匯研究》, 韓國外國語大學 博士論文, 2002.
- 王洪涌〈先秦兩漢商業詞匯、語義系統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06.
- 汪維輝《《老乞大》諸版本所反映的基本詞歷時更替》, 中國語文, 2005/06.
- 牛振《《老乞大》(朴通事)民俗語詞初探》,《語文學刊》, 2008/14.
- 任曉彤〈古本《老乞大》詞語釋義四則〉,《語文學刊》, 2010/19.
- 盧辰宣〈從《老乞大》看中國元代的紡織品〉,《東華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4/02.
- 夏鳳梅《《老乞大》四種版本詞匯比較研究》, 浙江大學 博士論文, 2005.
- \_\_\_\_\_〈《原本老乞大》衣食住行詞語考釋〉,《內蒙古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8/05.
- \_\_\_\_\_〈《原本老乞大》詞語釋義三則〉,《古漢語研究》, 2006/03.
- \_\_\_\_\_〈《原本老乞大》口語詞簡釋〉,《江漢大學學報(人文科學版)》, 2009/06.
- 張雪慧〈試論元代中國與高麗的貿易〉,《中國社會經濟史研究》, 2003/03.
- 蘇力〈原本《老乞大》所見元代衣俗〉,《呼倫貝爾學院學報》, 2006/05.
- 蔣紹愚《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
- 陳高華〈從《老乞大》(朴通事)看元與高麗的經濟文化交流〉,《歷史研究》, 1995/03.
- 姜勇仲《《朱子語類》詞彙研究》, 中國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6.
- \_\_\_\_\_〈語彙系統 研究와 中國歷代 商業語彙 研究方法〉,《中國文學研究》, 2008, Vol.36.
- \_\_\_\_\_ (a)〈朝鮮時代 類解類 譯學書 商業語彙 收錄 樣相과 對比〉,《中國言語研究》, 2009, Vol.30.
- \_\_\_\_\_ (b)〈朝鮮時期《譯語類解》所見的明清時期商業詞彙研究〉, 第四屆漢語史研討會暨第七屆中古漢語國際學術研討會, 北京語言文化大學, 2009.8.
- \_\_\_\_\_ (a)〈조선시대 역학서를 통해 본 중국어 분류어휘 교육의 의의-《老乞大》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중심으로〉,《중국어교육과 연구》, 2010, Vol.12.

\_\_\_\_\_ (b) 《〈譯語類解〉‘買賣’門 商業語彙의 분류와 풀이》, 《中國文學研究》, 2010, Vol.41.

\_\_\_\_\_ 《〈譯語類解·補〉상업어휘 연구》, 《中國文學研究》, 2011, Vol.45.

### 【中文提要】

《老乞大》作為漢語會話教科書，歷來受到漢語史以及漢語教學研究者的高度重視。從內容看，《老乞大》就是一本以商業活動為主題的會話書。不過過去研究中一般著重於‘會話書’的特點，而商業方面注意得不夠充分。因此，本文把《老乞大》看成是一本商貿會話書，並對於《老乞大》所收錄的商業詞彙作一番調查和詞彙考釋工作。《老乞大》的傳世代表版本有如下四種：

- A: 《古本老乞大》(1346年以前)
- B: 《老乞大諺解》(1670年以前)
- C: 《老乞大新釋》(1761年)
- D: 《重刊老乞大諺解》(1795年-1798年)

本文的研究方法是利用以上四種版本作比較來進行商業詞彙的研究。從詞彙學的方法來講，本文採取近義詞和類義詞的對比。下面列出的就是本文具體作分析的詞目：

1. ‘利錢’，‘退換’，‘兌付’，‘剋落’，‘交足’，‘鋪家’
2. ‘雜貨鋪’，‘雜貨鋪兒’
3. ‘典當’，‘典當’，‘俣當’
4. ‘繳計’，‘腳價’，‘腳錢’
5. ‘過瞞’，‘欺騙’，‘欺瞞’
6. ‘纏帶’，‘搭包’
7. ‘物業’，‘家計’，‘房產’

8. '房兒', '房舍', '房子'
9. '問客', '過賣', '掌櫃的', '賣物', '店家'
10. '田產', '田地'
11. '家私', '名'
12. '發落', '發賣', '出脫', '轉賣', '分賣', '發賣'
13. '伴當', '火伴', '同伴', '大哥', '阿哥', '哥哥', '相公', '朋友', '客人'

其中, 除了第一項('利錢', '退換', '兌付', '剋落', '交足', '鋪家')之外, 其他都是形成近義或類義關係的詞。

通過分析, 我們可以知道《老乞大》所反映的商業詞彙的面貌以及商業詞彙在近代漢語中後期的發展變化。本文希望將來更多的研究者注意《老乞大》的商業詞彙, 並且彌補本文的不足之處。

### 【主題語】

《老乞大》, 商業, 詞彙, 類義詞, 比較研究

투고일: 2014. 7. 15 / 심사일: 2014. 7. 20~8. 5 / 게재확정일: 2014. 8. 10
---